

급식시행 국민학교 ‘음식 쓰레기’ 몸살

어린이들 “반찬 맛없다” 20~50% 버려

일선 국민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급식의 식단이 단조롭고 맛과 질이 떨어져 어린이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어린이 1인당 하루 급식비가 평균 8백원선에 머무는 등 급식재정이 형편없이 낮은 데 따른 것으로, 성장기 어린이의 균형발달과 편식 개선이라는 애초 목적을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일선 교사들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학교 가운데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상당수 학교의 식단이

깍두기와 배추된장국, 튀김 등 1식 3찬에 그쳐 어린이들이 음식들을 기피하는 바람에 매일 20~50% 가량의 음식쓰레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양천구 7국교의 경우 1개 학급 37~38명의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밥과 반찬 대부분을 남겨 날마다 급식량 3백kg 가운데 50%인 1백50kg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성동구 마장동 2국교와 서초구 반포동 8국교의 급식 어린이 가운데서도 25% 가량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버리고 있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말했다.

2국교 5학년 김아무개(11)군은

“집에서 먹는 반찬보다 너무 맛이 없는 날이 많아 밥과 국물만 조금 먹고 나머지는 버린다”며 “아예 먹지 않고 버리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처럼 급식 기피현상이 일자 일부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음식을 잘 먹는 어린이들에게 학기 말에 상을 주는 등 대책을 세우기도 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급식음식 기피에 따라 음식쓰레기가 대량으로 나오자 ‘잔반 처리기’를 구입해 쓰레기를 처리하는가 하면 학생들이 원하는 음식만을 골라 먹도록 하는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서울 2국교 영양사 김아무개(31·여)씨는 “급식재정이 빈약해 조리사도 둘 수 없는 형편이어서 학부모를 당번으로 동원해 어린이 1인당 8백원선 한도 안에서 어린이 기준섭취량인 7백Kcal에 맞추다보니 식단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7국교 학부모 김아무개(34·여)씨는 “급식되는 음식이 어른들도 먹지 못할 정도로 맛과 질이 떨어져 달마다 2차례씩 맡는 급식당번 때마다 안쓰러운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며 “현재 8백원씩하는 개인 급식비를 대폭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 급식은 서울 1백97곳 등 전국 2천2백52개 국민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양상우 기자



급식교실 풍경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지도하며 음식을 다 먹는 어린이에게 상을 주거나 담임선생님이 확인까지 하고 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6일 서울 강남구 2국교에서 당번을 맡은 학생이 학생들이 밥을 다 먹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곽윤섭 기자